

여수·순천·광양시, 경제 위기 돌파 공동 행동 선언

여수·순천·광양행정협, 행정구역 넘는 도시간 협력 약속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위기 극복...지속가능 발전 맞손

여수·순천·광양시가 광양만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30일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철강·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3개 시의 공동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인화, 노관규, 정기명 등 세 도시 시장은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석유화학과 철강, 이차전지 산업 등 광양만권 주력산업 위기 극복에 서로 협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3개 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산업, 일자리, 교통, 정부 지원 등 전반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세 도시의 공동선언은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광양·순천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광양만권 산업 위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여건 조성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및 투자 친화 환경 조성 ▲철도·도로·대중교통 연계 및 생활 SOC 확충 등 광역 교통망과 관광·의료 인프라 연계 강화 방안이 담겼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3개 시가 그간 산업위

기 극복을 위해 각각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언은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부와 전남도, 3개 시가 함께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되며, 산업위기 지역 지정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광양만권이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세 도시의 공동 선언이 지방 정부 간 상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도시 간 협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제 공동체로 묶인 여수·순천·광양시의 공동선언이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공동선언을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단체로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이 구상이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30일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소속 시장들이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뒤 사진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사진=행정협의회 제공)

되찾기 위해 전남도와 협업체 산자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 3월 현장 실사를 마쳤다.

순천시와 광양시 역시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전남도와 함께 준비 중이다.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신속한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도시는 경제 위기 극복 협력 공동 선언을 계기로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

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의 정착 여건 강화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세 도시를 잇는 광역 교통망 확대 ▲관광 및 의료 인프라 연계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키로 했다.

지난 1986년 발족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광역 교통망 구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개정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력체로 연구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대 새 병원 예타 통과 사업 급물살...지역의료 향상

지역사회의 숙원 중 하나였던 전남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역 내 거점 국립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시설 인프라가 개선되면 지역민에 대한 필수 의료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5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의결했다.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현재 전남대병원 본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시설 관련 수리비와 개축(리모델링) 예산으로만 300억원이 편성되는 등 병원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모든 의료 기능이 동별로 나뉘어져 있어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환자 불편도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예타 통과로 전남대병원 새 병원은 총 사업비 9629억원 중 25%인 2407억을 국비로 최소 확보하게 됐다.

전남대병원 새 병원은 부지 22만여㎡(6만 7400평)에 107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오는 2034년까지 현재 전남대병원 부지와 의대 학동캠퍼스·간호대학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지어진다.

새 병원은 1단계 사업(동관)으로 오는 2030년까지 900병상 규모 신축 건물을 짓는다. 주요 진료 기능과 수술실, 권역 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 기능이 옮겨진다. 서관을 짓는 2단계 사업은 오는 2034년까지 현관 건물 1·2·3·5동과 제1주차장을 철거한 부지에 추진된다. 신축 건물에는 170병상과 교육·연구 시설 등이 들어선다.

새 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병원을 표방한다. 질환별 특성화센터 중심 진료 체계를 갖추며 '패스트 트랙(신속)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기 재활 체계를 통해 환자 치료 기간도 단축한다.

AI·바이오 융합 메디컬클러스터·연구중심 병원 등 연구 기능 확대 역시 새 병원 건립의 기대 효과로 꼽힌다.

전남대병원은 기제부 예타 조사 통과로 총 사업비의 25%를 국비로 지원 받지만, 나머지 사업비 7221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고 지원 비율을 최소 50% 수준까지 높여야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정부는 지역 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의 중추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병원의 노후 시설·장비 개선과 첨단화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정부에서도 지역 의료·필수 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국고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성원 역시 절실하다"며 "새 병원은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조기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 강화

도교육청·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전남도는 최근 무안군보건소에서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감염병 및 식품위생부서,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급식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식중독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총 478개소를 식품위생 공무원과 급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83명이 참여해 합동 위생 지도·점검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리실 청소 및 식재료 보관, 조리기구 소독 등 식중독과 직결되는 위생환경뿐만 아니라 종사자 건강 상태, 식재료 수거검사 등을 철저히 살피고 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식품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완제품 등 61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관리 강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전남도, 보건소, 학교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권장주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학교 급식은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식중독



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확대·운영하고, 학교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체계적 식중독 예방정책과 식품안전관리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나단 1092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조운성 (660117-1*****)
최 후 주 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길 130-30(영등리 1468-6)

위 망 조운성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5월 1일

공 고 인 : 조점순, 조만성, 조화성, 조기성, 조전성, 조해성, 조철순, 조정운.
주 소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8, 4동 310호(면목동, 면목입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5년 4월 24일
공 고 기 간 : 2025. 5. 1 ~ 2025. 7. 1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5-나단 338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 망 자 : 망 서경복 (500612-1*****)
최 후 주 소 : 광주 서구 화운로199번길 15, A동 102호(내방동, 그린빌다)

위 망 서경복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5월 1일

공 고 인 : 서지웅.
주 소 :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20, 511동 1202호(동천동, 우미리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5년 4월 24일
공 고 기 간 : 2025. 5. 1 ~ 2025. 7. 1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5-나단 345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황명호 (750826-1*****)
최 후 주 소 : 광주 서구 내방로 350번길 12, 305호(화정동)

위 망 황명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5월 1일

공 고 인 : 변해정.
주 소 :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 201동 503호(유촌동, 상무버들마을2단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5년 4월 29일
공 고 기 간 : 2025. 5. 1 ~ 2025. 7. 1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나단 5085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황선자 (500812-2*****)
최 후 주 소 :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104동 1504호(돌산1차청출아파트)

위 망 황선자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5월 1일

공 고 인 : 김준, 김완.
주 소 : 구리시 별말로147번길 15-29, 202호(토평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5년 4월 24일
공 고 기 간 : 2025. 5. 1 ~ 2025. 7. 1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5-나단 3551 특별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조희현 (360130-1*****)
최 후 주 소 : 광주 남구 봉선로 115, 203동 502호(봉선동, 봉선2차남양휴튼)

위 망 조희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5월 1일

공 고 인 : 조정일, 조아라, 조성일.
주 소 : 광주 북구 천변우로 227, 113동 2705호(임동, SCLASS THE ZENITH)
한정승인수리일 : 2025년 4월 29일
공 고 기 간 : 2025. 5. 1 ~ 2025. 7. 1

■ 세무기장조정 ■ 양도소득세
■ 법인설립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